

2019
12



병리협보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Technologists News

등록번호 성북 라 00009호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전문신문 윤리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원활한 병리협보 배송을 위해 홈페이지에서 도로명주소·5자리 우편번호로 개인정보 업데이트를 해주세요!

02 ISSUE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 성료

05 LICENSE

면허신고시스템 가이드

06 NEWS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진행

10 NEWS

병원급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

임상병리사 면허신고제

의료기사등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항에 의거 의료기사 면허증을 가진 사람은
3년마다 실태와 취업상황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신고할 때까지 면허의 효력을 정지할 수 있다.

※상세 안내는 4, 5면 참조

Q. 면허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국시원) 면허신고센터로 연계됨

Q.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Q.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비대상 포함)는 어떤 의미인가요?

-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대상인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연계된 면허신고센터에 그 사유를 증빙하여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면제·유예 신청을 협회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 ② 승인을 받은 후
- ③ 최종적으로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 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면제, 유예, 비대상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
- ②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즉,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Q & A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비전 선포식’ 성료



사 단독법 제정 ▶정신건강 작업치료
사 도입 ▶치과 보험보철물 제작에서
치과기공사의 기공 행위 인정 ▶치과
위생사 현실적 업무 합법화 ▶보건
의료정보관리사 병원급 의료기관 필수
인력 지정 ▶시력 보정용 안경 국가지
원 정책 등이 제시되었다.

한편, 박희열(서울대학교병원),
차재신(건국대학교병원) 회원은 보건
복지부장관 표창, 서울시장 표창을 각
각 수상했다.

의료기사단체총연합회는 마지막으로 8개 단체의 정책 비전이 실현될 수
있도록 ‘불어라! 보건의료기사의 바람’ 화합 세레머니를 진행해 보건의료기
사의 지위 향상을 위해 앞으로도 상호 협력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대한방사선사협회, 대한물리치료사협회, 대한작업
치료사협회, 대한치과기공사협회, 대한치과위생사협회, 대한의무기록협회,
대한안경사협회 총 8개 의료기사 단체를 대표하는 대한의료기사단체총연합
회가 지난 11월 15일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KBS 아레나홀에서 “불어라! 보
건의료기사의 바람”을 슬로건으로 개최한 「2019 보건의료기사의 날 정책
비전 선포식」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었다.

장인호 협회장을 비롯한 8개 단체장들은 연합회를 통해 약 45만명의 의
료기사들의 목소리를 모아 보건의료계 정책결정과정에서 본격적으로 참여하
고 의료기사의 권익과 역할 그리고 국민건강증진에 대한 의견을 효과적으로
전달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하였다.

의료기사들의 요청에 응답하듯, 정책선포식에는 김세연 국회보건복지위
원장, 전해숙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정춘숙·김광수 국회 보건복지위원, 신
경림 간호협회장을 비롯하여 8개 단체 1,500명의 회원들이 행사장을 가
득 메웠다.

연합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치과기공사협회 김양근 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그동안 8개 의료기사들은 국민의 보건으로 발전과 함께하며 보건복
지 향상을 위해 많은 역할을 해왔지만 업무적인 제약과 법적 토대 미흡으
로 국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려움을 겪어 왔다”
며 “전문화, 세분화 되고 있는 의료기사의 추세에 발맞추어 질 높은 보건
의료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
고 밝혔다.

정책비전 발표 순서에서는 8개 단체의 주요 정책 현안들이 소개됐다. 우
리 협회는 감염관리와 관련된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임상병리사
를 추가해 감염관리실의 전담근무자로 임상병리사를 규정할 것과 검사 건수
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를 제시했다. 장인호 협회장은 현 감염관리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를 포함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이 시급하다”며 “이제는 싸우고 행동해 그동안 잘못됐
던 부분들을 바로잡을 것”이라고 정책 반영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 협회 외 나머지 7개 단체에서는 ▶전문방사선사제 도입▶물리치료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수상자

보건복지부장관 표창: 박희열(서울대학교병원)

서울시장 표창: 차재신(건국대학교병원)

2019 보건의료 정책비전 선포식 대한임상병리사협회 정책현안

1. 감염관리실 임상병리사 인력배치 법제화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감염병 예방과 관리의 강화를 위해 감염관리
실 설치대상병원을 대폭 확대할 예정이고 이에 따라 병상 규모에 비례해
서 감염관리실 근무인력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감염병 관
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는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1명에도 포함되지 못하고 있다. 또한 메르스 사태 등의 후속조치로
감염관리 전담인력 확보를 위한 감염예방관리료 신설되었으나 감염관리
의 기준이 되는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검사는 감염관리행위에서 배제되어
있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위한 시
행규칙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포함에 대한 근거 마련에 법률적 검토를 제
안한 바 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진정성 있게 검토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감염관리는 임상병리사가 감시배양업무를 통해 감염의 원인이 되는 세
균을 분리배양하고 내성 및 서식처의 특성을 기반으로 역학적인 연관성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예방계획을 세우고 대책을 수립한다. 하지만 현행 제
도로는 임상병리사가 병원감염관리 업무에 참여할 수 없으므로 감염관리를
위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어렵고, 그로 인해 환자의 고통과 의료비용
의 상승을 초래하여 효율적인 감염관리를 이루지 못하는 문제점을 갖는다.

이러한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의료현장에서는 감염예방관리료를 지급하
는 인력근거인 의료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의 안에도 감염관리실에서
근무하는 임상병리사를 포함시키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의료법 시행규칙
제46조 제3호에 감염관리에 경험과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의료기
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에서는 임상병리사 인력 포
함을 인정하였지만(보건복지부 공문 근거) 이 부분에 대해 현 상황은 사문
화되고 편법화되어 있는 실정이다. 2012년도 질의공문을 통하여 질병정
책과에서 본 협회를 전문가 단체로 인정하였고, 향후 감염관리 정책에 본
협회를 전문가단체로 인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16.9.1. 감염예방관리

료(보건복지부고시 2016-152호) 산정에서 제외했다.

- 감염관리분야에서 임상병리사가 필요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 ▶ 감염관리는 역사적으로 임상병리사의 감시배양업무로부터 출발
- ▶ 감염감시검사는 임상미생물검사와 기술적으로 다른 검사 분야
- ▶ 감염관리분야 전문가 그룹에서 감염관리 임상병리사의 필요성 인정
- ▶ 중소병원에서 감염관리실 전담인력 확보 문제 해결을 위한 현실적 대안
- ▶ 해외국가에서는 임상병리사를 감염관리 구성원
(infection control team)으로 인정
- ▶ 감염감시검사를 임상미생물검사실에서 수행할 수 없는 당위성
- ▶ 감염관리실에서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
- ▶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감시 배양검사의 핵심 인력으로서 전문성
- ▶ 감염관리실에서 감염감시 배양검사의 전문성

실효성 있는 감염관리를 확대 운영하고자 하는 의료법 개정취지에 부합
하기 위해 감염관리의 전문가인 임상병리사가 감염관리실의 전담근무자로
규정되어야 하며, 의료법 시행규칙의 제46조 1항 2호에 감염관리에 경험
과 지식이 있는 임상병리사가 추가되어 개정되어야 한다.

효율적인 감염관리는 검사를 통하여 감염의 원인균을 규명하고 결과를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이러한 감염원인체를 찾아내는 감시
검사(세균배양검사, 바이러스유전자검사, 환경배양검사, 무균배양검사)는
임상병리사가 담당하고 있으며 감시검사가 없는 감염관리 대책은 한계가
있다. 이에 임상병리사의 인력 및 감시배양의 검사에 대한 인정을 간호사와
동등하게 적용하여 감염 예방관리료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정권고해야 한다.

2. 검사 건수당 임상병리사 수 법제화

진단검사의학은 과거에는 대부분의 검사과정의 수작업으로 이루어졌지
만, 현재는 첨단 장비 및 분석 장비가 도입되면서 업무가 자동화, 시스템
화되어 검사가 한층 신속하고 정확해졌다. 이에 따라 임상병리사의 직무한
경은 더욱 복잡하고 다양해졌으며 보다 전문성을 갖춘 임상병리사의 필요
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상병리검사실은 국민의 건강관리, 질병의 진단 및 치료에 기본이 되는
각종 검사에 대한 결과를 보고해주는 의료기관의 일부분이다. 의료가 현
대화될수록 진료에 있어서 검사 결과에 대한 의존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임상병리검사실의 역할은 앞으로도 더욱 중요해질 것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 임상병리검사실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해서는 수입과 지출에 연관

된 경제적 측면도 중요하지만, 검사의 질 또한 무시할 수 없다.

이에 본 협회는 우리나라의 각 검사 항목별 단가를 측정하여 우리나라
검사실의 상황에 적절한 단가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검사 건수에
맞는 임상병리사 수의 적정 규모를 산정해 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현황을 조사하여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작
업여건, 생산성 및 자동화 등을 파악하고 병원별, 부서별, 업무량 및 생산
성을 평가한 후 이를 분석하여 국내 임상병리검사실의 업무량 및 생산성을
평가하는 지침을 마련할 예정이다. 그리고 그 효율을 비교하여 임상병리검
사실 인원 배치의 법제화를 이루고자 한다.

면허신고 제도 질의응답



Q1. 면허신고는 왜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는 본인의 현 상태, 취업상황 등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면허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면허효력정지가 될 수 있어 면허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2. 면허신고는 어디에서 하나요?

○ 각 협회 홈페이지의 면허신고센터(시스템)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사원) 면허신고센터로 연계됨

Q3. 면허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 의료기사법령에 따라 면허효력정지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면허효력정지처분 이후에는 해당 면허 범위 내 업무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Q4. 이번에 면허신고를 하면 다음에 또 신고를 해야 하나요?

○ 면허신고란 본인의 현 상태, 취업상황, 최근 3년 간 보수교육 이수현황 등을 면허취득 이후 매 3년마다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하는 것입니다.
○ 2019년에 면허신고를 했다면 2022년(12월 31일까지)에 면허신고를 하면 됩니다.

Q5. 의료기사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고 있으며, 향후에 계획이 없는 경우에도 면허신고를 해야 하나요?

○ 업무 종사 유무에 관계없이, 면허의 효력 유지를 위해서는 최초로 면허를 받은 후부터 3년마다 면허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Q6. 장기간 의료기사 등 업무에 종사하지 않아 현재 면허 상태(면허신고 여부, 보수교육 이수 이력, 면제·유예·비대상 신청 이력)를 확인하고 싶습니다.

○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접속하여 면허(자격)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후 본인의 현재 면허 상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행정처분(관계법령 위반으로 인한 면허정지, 면허취소) 이력 조회는 화면 하단의 '면허(자격)변호 확인하기' 클릭 후 보건복지부 면허민원안내에서 확인 가능

Q7. 면허신고를 위해 보수교육은 꼭 받아야 하나요?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면허신고를 반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의료기사법 제11조제2항)
○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교육이 면제 또는 유예될 수 있습니다.

Q8. 보수교육 면제와 유예(비대상 포함)는 어떤 의미인가요?

○ 보수교육 면제는 보수교육 이수 의무가 완전히 소멸되는 것입니다.
○ 보수교육 유예(비대상 포함)는 일시적으로 보수교육 이수를 보류하는 것으로 유예(비대상 포함)사유 해소 시, 과거 유예했던 보수교육을 유예기간에 따라 이수하여야 합니다.

Q9.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면제대상은 군 복무자, 신규 면허자, 해당 면허 전공 관련 대학원의 재학생 등이며, 유예대상은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6개월 미만 종사자, 입원치료 중인 자 등입니다.

※ 의료기관 등에서 관련 업무에 6개월 미만 종사자('16년까지는 면제대상, '18년까지는 1년 이내 복귀한 경우에는 면제, 그 외에는 비대상이었으나, 보수교육 강화 차원에서 '19년부터 유예대상으로 바뀜)

Q10. 보수교육 면제 또는 유예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보수교육 면제·유예신청'은 해당년도 보수교육 면제·유예대상인 경우 협회 홈페이지에 연계된 면허신고센터에 그 사유를 증빙하여 보수교육 면제·유예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 ① 면제·유예 신청을 협회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 신청하고(그 사유가 같더라도 매년 면제를 신청해야 함) ② 승인을 받은 후 ③ 최종적으로 면허 신고서까지 작성 및 저장해야 면허 신고가 완료됩니다.

Q11. 보수교육 면제, 유예, 비대상을 신청하기 위한 제출 서류는 무엇인가요?

※ 각 사유별로 1개의 서류 제출 가능. 다만, 사유 확인 불가 시 추가 서류 제출로 확인
○ 6개월 미만 종사자 → 휴직증명서, 타업종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 군복무자 → 병적증명서, 군인영 사실확인서 또는 현역복무확인서
○ 전공 관련 대학원 재학생 → 전공이 기재된 당해 연도 성적증명서 또는 재학증명서
○ 신규면허 취득자 → 면허증 사본
○ 출산+육아휴직자 → 임신확인서, 출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휴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 발급), 자기근무이력확인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급-요양기관근무자만 해당)

Q12. 연도별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면제, 유예, 비대상 포함) 하였다면 모든 절차가 완료된 건가요?

○ ①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후(면제, 유예, 비대상은 협회 홈페이지 면허 신고센터에 면제, 유예, 비대상 신청하여 승인 받은 후) → ② 각 의료기사등 협회 홈페이지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면허신고서 작성 및 저장)를 직접 하여야 합니다.
○ 즉,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하더라도 면허신고까지 이행해야 모든 절차가 완료 되는 것입니다.

Q13. 면허신고에 관하여 왜 협회에 문의를 해야 하는 건가요?

○ 면허신고를 위해서는 보수교육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사법 제28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보건복지부 고시 제2000-18호(의료기사 등 보수교육기관)에 의해 의료기사 등에 대한 보수교육은 각 협회에 위탁하고 있습니다.

Q14. 면허신고센터에서 면허신고가 어려운 경우(고령자 등) 다른 신고 방법은 없나요?

○ 컴퓨터 사용이 어려운 고령자나 해외에 체류하여 면허신고가 어려운 경우에는 면제·유예 관련서류를 관련 협회로 우편 송부(요금은 본인 부담)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 또한, 면허신고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각 협회 중앙회를 방문하여 현장 접수가 가능합니다.



면허신고 시스템 가이드



1. 면허신고센터 통합 로그인



① 직종, 면허번호, 성명, 출생년도, 성별을 입력하면 면허검증 화면으로 이동한다.
② 자신의 면허번호를 모를 경우 '면허번호 확인하기'를 클릭하여 보건복지부 홈페이지로 이동한다.

3. 면허신고 관련 업무 안내



① 사용자의 면허발급연도 혹은 마지막 면허신고년도로부터 당해 연도까지 진행한 보수교육 이수 또는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내역을 조회합니다.
면허발급년도 혹은 마지막 면허신고년도를 토대로 사용자의 면허신고 대상연도를 계산해 해당연도에 면허신고를 하였는지 여부를 조회합니다.
사용자의 신고 이력에 따라 안내 문구가 나타납니다. 사용자가 향후 진행해야 할 면허신고 관련 업무를 예상하여 해당 화면으로 이동하는 버튼이 하단에 존재하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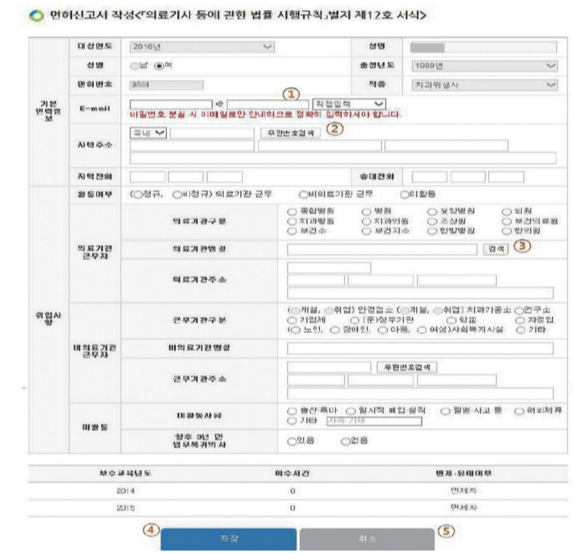
- 면허신고서 작성: 면허신고 대상자인 경우, 클릭 시 면허신고 개인정보 동의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 클릭 시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서 작성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확인: 보수교육, 면허신고, 면제유예 중 하나라도 대기, 오류 등의 상태일 경우 존재한다. 클릭 시 신고현황확인 화면으로 이동한다.

2. 과거 이력 조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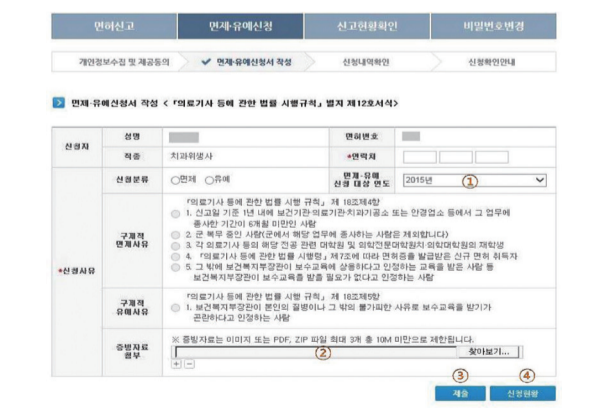
① 사용자가 과거에 받은 보수교육 이력, 면허신고, 면제유예 신청 이력을 보여준다. 비밀번호가 존재하는 경우 확인 버튼 클릭 시 비밀번호 확인 화면으로 이동,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인증 화면으로 이동한다.

4. 면허신고서 작성



- ① 이메일 입력 시, 선택박스에 도메인주소를 선택하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선택박스에 없는 이메일은 '직접입력'을 선택한 뒤 직접 입력하면 됩니다.
- ② 자택주소 등록 시 도로명주소 검색창을 새 창으로 띄우고 주소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입력이 완료됩니다.
- ③ 의료기관명 검색창을 새 창으로 띄운 뒤, 검색을 완료하면 자동으로 의료기관명과 주소가 화면에 입력됩니다.
- ④ 작성을 완료한 신고서를 제출하고 신청확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⑤ 신고서 작성을 중단하고 신고현황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5. 면제·유예신청서 작성



- ① 자동으로 면제유예 신청 대상연도가 입력됩니다.
- ② 면제·유예 신청 시 필요한 서류가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Local에서 찾아서 등록합니다.
- ③ 작성을 완료한 신청서를 제출하고 신청확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④ 신청서 작성을 중단하고 신고현황확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6. 보수교육 면제유예 신청내역 확인



- ① 신청서에 대한 협회의 판정 결과를 보여주는 목록입니다.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사유와 함께 표시됩니다.
- ② 해당 면제유예 신청서가 불가 판정을 받은 경우 나타납니다. 면제유예 신청 현황 수정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 ③ 신청확인안내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NEWS

중앙회 소식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 진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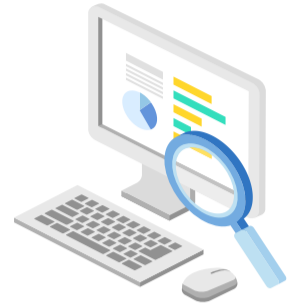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지난 11월 9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검진기관 및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를 진행했다.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는 중소병의원에서 근무하는 회원의 처우 개선 및 이들을 위한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김대중 위원장(중앙회 사업부회장, 동남보건대학교) 외 16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날은 회의와 함께 나혜진(강남지인병원), 조정숙(진내과의원), 이주연(남양주 현대정형외과의원), 남운정(청담베스트내과의원) 4명의 회원들이 새롭게 위원으로 위촉되었다.

회의 전, 전문교육 강사 워크샵, 제57회 종합학술대회 중소병의원 학술제 등 2019년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의 활동에 대한 경과보고가 있었다. 위원회는 회원 설문 등을 통해 잘된 점과 부족한 점을 공유했다. 위원회 최병호(아주대학교병원) 간사는 "차기 중소병의원학술제에서는 알리핀과 인력을 적극적으로 배치해 회원들의 혼선을 최소화할 예정이며, '임상병리사의 업무영역'과 같은 만족도가 높았던 강의는 지속적, 연계성 있는 교육으로 구성하겠다"고 이날 회의를 통해 밝혔다.

중소병의원발전위원회는 이날 '개원의 강사팀 운영'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를 진행했다. 검체검사로 인하, 포괄수가제 확대 등 임상병리사를 둘러싼 의료환경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중소병의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 회원들에게 어떤 부분이 제일 필요하고 시급한지에 대한 회의가 이어졌다.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질 관리를 통해 공단강사팀을 운영하고, 보수교육 및 학술대회에서 중소병의원 회원들이 원활하게 참여하고 업무적, 학술적으로 도움 받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다



홈페이지 2차 고도화 진행



대한임상병리사협회는 회원의 편의성을 높인 홈페이지(kamt.or.kr) 2차 고도화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협회는 1차 홈페이지 고도화에서 어플리케이션, 전자출결, 초록접수 시스템, 온라인 보수교육 및 서버의 개발로 많은 변화를 가져왔으나, 급변하는 주변 환경 및 1차 고도화에서 미진했던 부분들을 회원, 중앙회 및 시도분과에서 요청 받은 내용들로 고도화를 진행할 계획이다. 고도화 내역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제시한 정책지시사항(면허신고, 면허신고 간편조회, 필수 이수교육 관리)을 반영 ▶협회와 회원 소통을 위한 챗봇 시스템, 설문기능 구축 ▶회원정보, 결제정보, 보수교육 평점 정보 데이터베이스 정제 ▶신생, 1차 고도화 미참여 시도분과 홈페이지 제작 ▶노무상담, 중소병의원, 채용계시판 신설 및 기능 강화 ▶온라인 보수교육 장바구니 기능, 부분취소 등 결제 프로세스 고도화 등을 작업할 예정이다.

중앙회 활동보고서 (2019.11.01 ~ 11.30)

- ▶ 11월 2일: 경기도 양평군에 위치한 북한강연수원에서 제445차 상임이사 회 및 집행부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회장단 및 생리기능검사 업권소위원회 연석회의 ▲2019년도 전문임상병리사 운영 및 진행사항 ▲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공문 내용 ▲홈페이지 2차 고도화 진행 ▲2019년 제1차 법제워크숍 개최 ▲전문지 기자간담회 진행 ▲한국-대만 연수프로그램 결과가 보고되었다. 심의 및 의결사항으로는 ▲보수교육 규정 개정의 건 등이 논의되었다.
- ▶ 11월 4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보수교육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보건복지부 면허효력정지 사전통지서 ▲보건복지부 필수과목 관련 협회 자체 양성계획이 보고되었으며, 2020년 보수교육 계획서 1차 심의를 진행했다.
- ▶ 11월 7일: 협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공보부 회의가 진행됐다. 병리협보 웹진화 및 협회 캐릭터에 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 11월 13일: 협회관 5층 소회의실에서 정보통신부 회의가 진행됐다. 협회 홈페이지 2차 고도화 및 영문 홈페이지에 관한 사안이 논의되었다.
- ▶ 11월 23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학술발전위원회 회의가 진행됐다. ▲2020년도 종합학술대회 학술프로그램 운영의 건 ▲일본 제69회 의학검사학술대회(센다이) ▲2019 연구과제 중간보고서 검토 및 평가의 건 ▲기타 학술 관련 안건이 논의되었다

장인호 협회장 활동보고서 (2019.11.01 ~ 2019.11.30)

- ▶ 11월 2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린 대한임상미생물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에 참석. 학술대회 참관 및 축사.
- ▶ 11월 7일: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장단 회의를 진행. 협회 및 임상병리사 관련 중요 사안에 대하여 점검, 논의.
- ▶ 11월 9일: 서울시 중구 에이퍼스트호텔에서 열린 제1차 법제워크숍에 참석. 또한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중소병의원 발전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축사 및 신입 위원들에게 위촉장 수여.
- ▶ 11월 15일: 서울시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열린 보건의료기사의 날 행사에 참석. 협회의 비전 발표 및 타 보건의료기사단체장들과 퍼포먼스 진행.
- ▶ 11월 18일: 서울시 강남구 서래향에서 서울시, 경기도회 회장과 간담회 진행.
- ▶ 11월 20일: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고문단 회의 진행.
- ▶ 11월 21일: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국제부 회의 진행. 12월 1일 예정된 AAMLS 상임이사회 회의 준비 및 국제부 현안 논의
- ▶ 11월 25일: 협회관 5층 회의실에서 회관운영위원회 회의 진행.
- ▶ 11월 26일: 협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차 감염관리위원회 회의 참석. 2019년 감염관리위원회 업무 및 2020년도 계획 및 예산안에 대해 보고받고, 의료법 감염관리 실무자 개정 움직임에 대해 임상병리사가 포함되도록 복지부에 강하게 요구할 예정임을 알림.
- ▶ 11월 30일: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신촌세브란스병원에서 열리는 대한임상수혈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참석. 또한 인천 남동구 인천광역시 청소년수련관에서 열리는 제3회 인천광역시 임상병리사협회장배 농구대회에 참석하여 축사. 이후 11월 30일부터 12월 3일까지 필리핀 마닐라에서 열리는 PAMET 학회 및 AAMLS 상임이사회에 참석.

NEWS

시도회 및 분과학회 소식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사회 제23차 연수교육 및 정기총회



대한세포병리학회 세포병리사회는 지난 2019년 11월 9일 서울성모병원의 생명산업연구원 2층 대강당에서 제23차 세포병리사회 연수교육 및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세포병리사회 정회원 270명 참석하여, 세침흡인세포(FNA)의 각 분야별 병리교수 3명 (서울아산병원 송준선교수; Salivary Gland FNA & the Milan System, 순천향부천병원 진수지 교수; Malignant Cytologic Findings of Respiratory Tract, 서울대병원 김혜령교수; EUS-FNA cytology of the Pancreas)과 병리사 1명 (원자력의학원 신명순회원; Lymph node benign tumor)의 연수특강 4편의 강의와 더불어 세포병리사회 지수일회장의 '세포병리사회 연구과제 보고' 1편의 발표가 있었다.

또한 세포병리사회 평원회의와 정기총회에서는 세포병리사의 1년간 행정, 재무결산 등의 보고와 차기 회장 선출에 관한 투표를 하여 신임 회장으로 강정은 현부회장(연세의료원)을 선임하였다.



임상혈액검사학회 2019년도 임상혈액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 성료

대한임상혈액검사학회(학회장 최미옥)는 지난 11월 16일 신촌 세브란스병원 은명대강당에서 열린 '2019년도 임상혈액검사학회 추계학술대회'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학술대회엔 사전등록 548명, 현장등록 13명의 회원들이 참여하였으며, 혈액학과 관련된 2개 특강과 6개의 구연발표로 학술대회가 진행되었다.

임상혈액검사학회에서는 이번 학술대회에 대한 회원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2020년 3월 28일과 11월에 보수교육을 기획, 개최할 예정이다. 최미옥 학회장은 "앞으로도 회원의 요구에 맞춘 알찬 보수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밝혔다.



서울시병리사상 공모

서울시임상병리사협회에서는 서울시회 관련 규정에 의하여 회원의 의무를 다하고 5년 이상 임상병리사 업무에 종사한 자로 협회 발전에 미친 공로가 인정된 회원에게 서울시병리사상을 수상하려고 하오니 많은 관심과 추천 바랍니다.

----- 아 래 -----

- 신청대상** 서울시회 회원으로서 회원 권익 향상, 정책개발 기여, 사회봉사 등 임상병리사 위상에 기여한 자.
 - 제출서류** 추천서, 피추천자의 자기소개서, 피추천자의 증명사진, 증빙자료 추천서 양식은 서울시회 홈페이지 참조
(http://seoul.kamt.or.kr 공지사항 게재)
 - 신청방법** 온라인 접수(seoulkamt@hanmail.net)만 가능합니다.
 - 접수마감** 2019년 12월 20일(금)까지
 - 시상일시** 2020년 1월 17일(금) 19:00
 - 시상장소** 고려대학교 교우회관 안암홀 지하1층
 - 시상내역** 제58차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상패 및 상금 150만원 시상
- ☎ 문의 : 3291-5605-6

서울특별시임상병리사회장

시도회 소식

대구시회
남구청 이웃돕기 연탄 및 라면 기탁

대구광역시임상병리사협회(회장 유황림)는 지난 11월 16일 대구시 남구에 위치한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남구지회를 찾아 연탄을 배달하고 저소득 가정을 위한 라면 50상자를 전달했다.

난방에너지 취약가정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해 협회 회원들이 직접 시각 장애인 남구지회에 연탄을 배달하며 온정을 나누고, 남구 관내 저소득층에게 전달할 라면도 기탁하였다. 대구시회는 2012년 연탄배달 봉사를 시작으로 약 8년간 남구청을 찾아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연탄 1,000장과 라면 50박스 후원한 바 있다. 조재구 대구광역시 남구청장은 "전달해주신 연탄과 라면은 따뜻한 마음과 함께 우리 이웃들에게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수고한 임원 및 회원들을 대상으로 격려를 하였다.



부산시회
부산광역시회 임상화학검사연구회 창립

지난 11월 22일, 동의과학대학교 정보관에서는 '부산광역시회 임상화학 검사연구회 창립세미나'가 개최됐다. 80여명의 회원이 참석한 이날 행사는 사전행사, 창립총회 세미나, 창립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창립총회를 통해서는 회장(1명), 부회장(2명), 감사(1명), 행정간사(1명)가 선출되었다.

이날 초대 회장으로 선출된 안광섭 회장은 "앞으로 부산시 임상화학검사 연구회가 더 많은 사람들과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중소병의원과도 같은 정보를 전달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모임을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부산광역시회 임상화학검사연구회 선출 임원 명단

- 회장: 안광섭(씨젠의료재단 부산의원)
- 부회장: 김정규(일신기독병원), 김민주(좋은문화병원)
- 감사: 서정숙(동아대학교병원)
- 행정간사: 정현미(씨젠의료재단 부산의원)



씨젠의료재단,
2020년도 상반기 우수인재 공개채용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이 2020년 1월 1일부터 19일까지 정규직 전환형 인턴사원을 모집한다. 모집부문은 검사(서울 본원 · 부산경남검사센터), 행정(서울 본원), 영업 등 세 가지이며 부문별 업무 분야가 세분화된다.

이번 공개채용에 선발된 우수인재들은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기술 교육과 현장 실습 등 약 5개월간의 인턴십 프로그램을 이수해야 하며, 평가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다. 인턴사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율은 매우 높은 수준으로, 2017년 100% · 2018년 90% · 2019년 90%를 기록했다.

2020년도 상반기 주요 모집분야는 임상병리 · 분자진단, 검체 수거 및 영업 등으로, 지정된 근무지에서 근무가 가능하고 초대졸 이상의 학력 보유자(2020년 2월 졸업 예정자 포함)면 지원 가능하다. 단, 일부 모집분야의 경우 분야 별 전공(임상병리학 · 생명과학 계열 · 보건학 계열 등) 여부 또는 관련 면허증 소지가 필수요건이다.

천중기 이사장은 "재단의 핵심 경영지표 가운데 하나가 인재양성으로,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이라는 재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우수인재의 꿈과 열정을 지원하는 것을 아끼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공개채용에도 다양한 매력을 지닌 분들이 많이 지원하시어 건강하고 행복한 씨젠 문화를 함께 만들어 나가며,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재단 인턴십 프로그램을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된 직원은 "재단의 인턴십 프로그램은 실무 보조와 함께 주기적으로 업무 개선방향에 관해 고민하고 발표하는 과정을 담고 있어서 프로그램을 통해 실무자식 체득은 물론, 스스로 성장하고 있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었다"며 많은 우수인재들이 도전해 보기를 권했다.

지원서 접수는 2020년 1월 19일까지며, 모집분야 별 자격요건 및 근무지 · 인턴과정 주요내용 · 채용전형 일정 · 제출서류 등은 씨젠의료재단 홈페이지(채용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포·DNA 등 폐기 인체유래물 연구활용 기회 확대된다

그간 치료와 진단목적으로 채취되고서 폐기되던 인체 유래물 잔여 검체를 연구에 활용할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의 잔여 검사 대상물(검체) 제공 관련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내용의 '생명윤리·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1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한테서 인체 유래물을 채취하기 전에 주요 내용을 구두 설명하고 관련 내용을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고, 거부 의사 표시가 없으면 잔여검체를 인체유래물은행에 제공할 수 있게 했다.

의료기관은 잔여 검체 제공 때 제공목적과 익명화 방법 등을 정해 기관윤리위원회(IRB) 승인을 받도록 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과 인체유래물은행이 익명화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도록 했다. 돈을 받고 잔여 검체를 제공한 의료기관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피 채취자 서면 고지 내용·거부 의사 표시 방법을 구체화했다. 의료기관이 은행에 잔여 검체 제공 시 요구 가능한 경비 산정 기준을 인체 유래물 경비 산정 기준에 준해 마련했다

부산가톨릭대 부설 임상시험센터, 영동제약주와 협약

부산가톨릭대 산학협력단 부설 부산가톨릭의료원 공동체외진단임상시험센터는 지난 11월 13일 영동제약(주)와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 교류 협력에 관한 협약식'을 가졌다.

양 기관은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임상시험 △신개발의료기기의 MFDS, FDA 등록을 위한 임상기술지도 및 의료기기 인허가 교육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에 대한 기술, 연구개발, 시설 및 기자재 공동활용 △현장 맞춤형 교육 등의 협약을 맺었으며, 영동제약(주)에서 체외진단 의료기기 임상시험을 위한 3천만원 상당의 임상검체 보관 장비와 검체정보 관리 시스템을 기증했다.

지역사회와 지역 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부산가톨릭대와 부산가톨릭의료원은 2019년에 부산가톨릭의료원 공동체외진단임상시험센터를 설립했으며, 국내 체외진단 의료기기의 세계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외진단 의료기기 연구개발, 임상시험, 인허가 전문인력 양성 등을 이어나갈 계획이다.

센터를 운영하는 부산가톨릭대 임상병리학과는 △4년제 임상병리학과 중 유일하게 LINC+사업 참여 △병원경영학과, 소프트웨어학과와 함께 '4차 산업혁명 혁신선도대학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비를 지원받고 있으며, 생물안전 및 의료바이오 산업 현장에서 요구하는 현장 맞춤형 교육을 추가적으로 실시해 임상병리사의 진출 분야 다양화를 추구하고 있다.

부산가톨릭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학원생의 육성에 힘 쏟아 지역사회 의료바이오 산산업에 기여할 수 있는 전문가를 양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한임상병리사협회 병리협보

임상병리사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 광고문의
전화번호 : 02-3291-5435
팩스번호 : 02-3291-5621
E-mail : kamtreporter@daum.net



큰 결실이 되어...

좋은 밭의 씨앗은 몇십 배의 결실로 열매를 맺습니다. 고객의 사랑과 관심의 토양 위에서 성장해 온 충실화학은 '감사의 마음'을 실어 더욱 풍성한 결실로 고객의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 CHEMISTRY DxC 880I, DxC 800, AU Series
- IMMUNOASSAY DxI 800
- HEMATOLOGY DxH 800 / LH1500 Workcell System / LH 780 / LH 750
- SERUM PROTEIN IMMAGE 800
- HEMOSTASIS ACL TOP / TOP 500 CTS, ACL ELITE PRO, ACL Family
- LAB Automation System
- Open Clinical Chemistry Reagent
- IMMUNOLOGY ELISA Reagent
- MAST ALLERGY
- BD Tube & Syringe, BACTEC FX, MGIT 960/320
- GYNETICS Follicle Aspiration Needles
- Molecular Diagnostics



본사 : 서울시 성동구 도선동 330번지
T. 02-2294-6411 / 080-021-7171 F. 02-2293-6556

식품의약품안전처,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 및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가 11월 27일부터 2020년 1월 6일까지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시행령 및 시행규칙은 체외진단의료기기(임신테스트기, 혈당측정기 등과 같이 사람이나 동물로부터 유래하는 검체를 체외에서 검사하기 위하여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시약, 대조·보정 물질, 기구·기계장치, 소프트웨어 등)의 특성에 맞는 허가·관리체계를 주요내용으로 하며,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제정 후속조치로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기 위해 추진했다.

법령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등급 분류 기준 마련

체외진단의료기기의 등급은 사용목적과 잠재적 위해성 정도에 따라 4개 등급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식약처장이 세부 품목별로 등급을 정하여 고시하도록 했다.

▲ 인·허가 및 심사 절차 규정

체외진단의료기기의 업허가 및 품목(류) 허가 등에 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원재료, 사용목적 등 중요사항 변경의 경우에만 변경허가 등을 받도록 하고, 이외의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는 단순 보고토록 했다.

▲ 임상적 성능시험기관 지정 및 실시기준 마련

혈액, 체액 등의 검체를 이용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에 맞게 임상적 성능시험의 실시기준을 마련했으며, 임상적 성능시험을 실시할 기관의 시설, 인력 및 기구 등의 지정기준을 규정했다.

▲ 임상검사실 체외진단검사 기준 도입

임상검사실의 체외진단검사 인증을 받으려는 자는 인증 신청서에 품질관리체계, 전문인력의 숙련도 등에 관한 자료를 첨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도록 하는 등 인증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했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 의료기기정책과는 "이번 제정안을 통해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특성을 고려한 허가·관리 체계가 마련하여 체외진단기기에 대한 연구개발 및 제품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병원급 의료기관, 수혈관리실 설치 의무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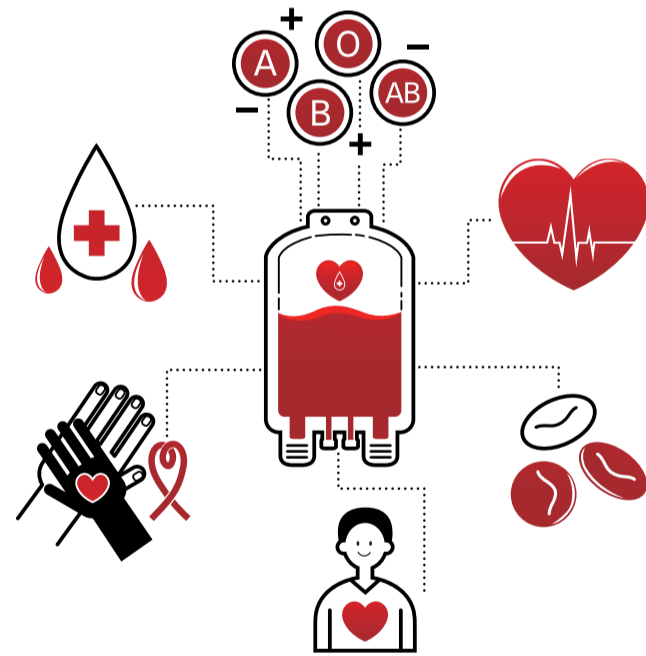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실 설치가 의무화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혈액관리법' 등 보건복지부 소관 24개 법안이 10월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지난 11월 1일 밝혔다.

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 중 혈액관리법은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 수혈관리위원회·수혈관리실을 설치하고 혈액 업무 전담 인력을 두도록 했다.

또한 혈액원과 의료기관에 혈액 공급 및 사용 등에 관한 정보 제출 의무를 부과하고 혈액원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사업계획·예산안·결산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이외에도 개정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제2급감염병에 E형간염을 추가하고 감염병 여부가 불분명하나 그 발병원인을 조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역학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조항을 뒀다.

또한 기업 내 건강친화환경을 조성하여 직장인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건강친화기업 인증제도'도 도입될 예정이다.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 전공학술제 및 대동제 성료

을지대학교 임상병리학과(학과장 전진현)는 지난 11월 19일 경기도 성남시 을지대학교 캠퍼스 내 위치한 뉴밀레니엄센터에서 학생 25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전공학술제 및 동문과 함께하는 대동제를 개최, 성황리에 마무리하였다.

총학생회가 다채롭게 준비한 프로그램과 함께, 오전 학술제에서는 11편의 연제가 발표되었다. 오후에는 체육관에서 다양한 구기종목과 레크리에이션이 진행돼 동문과 학생 모두가 어울릴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었다.



2019년! 인증샷 이벤트

여러분의 병리협보 인증샷을 보내주세요!

병리협보는 정회원 분들을 대상으로 이벤트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호 병리협보에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을 사진으로 찍어 간단한 감상평과 함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총 2분을 추천하여 소정의 기념품(3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보내주시는 소중한 의견은 다음 병리협보에 게재됩니다.

- 1) 접수기한: 2019년 12월 24일까지 도착
- 2) 접수방법: 접수양식에 맞게 작성하여 이메일(kamtreporter@daum.net)로 발송
- 3) 접수양식
 - 이번 호 가장 좋았던 기사 사진
 - 해당 기사에 대한 간단한 의견
 - 개인정보: 성명, 전화번호, 상품을 받으실 주소



[제442호 당첨자]

● 박상민 회원: 협회 홈페이지에 회원 참여게시판을 오픈하였다는 기사가 제일 마음에 와 닿았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고 있는 임상병리사입니다. 이번 11월 협보를 통해 '회원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하신 공보부회장 선생님의 말씀을 보았고, 참여게시판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는 임상병리사의 권익 향상을 위해 유튜브를 하고 있는 현직자로서, 참여게시판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 김세희 회원: 임상병리사의 심장초음파 검사업무에 대한 의견서·생리학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일 앞면에 흐뭇한 기사를 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더 많은 관심으로 임상병리사의 전문분야를 넓혀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회원동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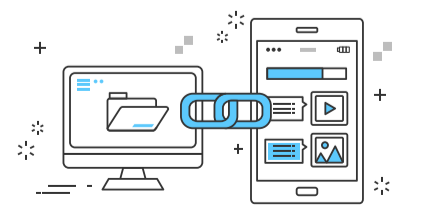
손명진(인천성모병원)

안산시 가족축제의 날에 MC guy로 초대되어 감사패 수상하였습니다. 또한 헌혈 50회를 기록해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금장을 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회원 여러분의 기고를 기다립니다!

이런 정보, 나만 알고 있기 아깝다! 공유하고 싶었던 적 없으신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생생한 현장 정보와 노하우를 병리협보를 통해 다른 임상병리사 회원님들과 공유해 주세요!

- 접수기한: 매월 20일까지
- 접수방법: 이메일(kamtreporter@daum.net)으로 원고와 관련 파일 발송
- 기고문 주제: 임상병리사와 관련된 것이라면 뭐든지



글로벌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 (재)씨젠의료재단 2020년도 상반기 우수인재 공개채용

*Challenge to the best!
with Seegene!!*

(재)씨젠의료재단은 'Global Standard of Reference Lab'이란 경영 목표 아래
임상진료 및 고품질 진단서비스를 제공하는 질병검사 전문의료기관입니다.
씨젠의료재단과 함께 최고를 향해 도전할 열정적이고, 진취적인 우수인재를 모십니다.
채용된 우수인재는 인턴과정 후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지원기간 **2020년 1월 1일(수) ~ 1월 19일 (일)까지**

정규직 전환율

2017년 100%
2018년 90%
2019년 90%

채용일정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0년 1월 29일(수)

(인적성검사, 채용 신체검사, 면접 등 자세한 일정은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추후 공지될 예정입니다.)

지원방법

- ① 재단 홈페이지 채용정보에서 입사지원서·자기소개서 양식 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증명사진 부착必)
- ② 작성 후 E-MAIL 접수(job@mf.seegene.com)
(입사지원서 응시 부문에 모집 분야 및 근무지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ex. 임상병리 부산경남검사센터)

인턴과정

- ① 기간 : 2020년 3월 2일 ~ 7월 31일(5개월) 예정
- ② 인턴 월보수(야간 및 토요일 등 초과근무 수당 별도)
 - 3년제 정규 대학 졸 : 200만원
 - 4년제 정규 대학 졸 : 210만원
 - 대학원(석사) 졸 이상 : 230만원
- ③ 복리후생
 - 중식 제공, 검사 가운 지급(영업부는 영업활동비 월 20만원 별도 지급)
 - 4대보험 가입
 - 근로자의 날 등 조품 지급(정규직과 동일품목 지급)
- ④ 주요 프로그램
 - 검사 및 행정부문 : 해당부문 실무 보조 및 교육
 - 영업부문 : 영업거래처 현장 실무 보조 및 교육
 - 공통 : OJT, 업무개선안 발표 등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를 참고하세요.
www.seegenemedical.com

☎ 채용 문의 02-2218-9022